

중국조선족
전통문화, 풍속 이야기

ZHONGGUOCHAOXIANZU
CHUANTONGWENHUAFENGSGUSHI

▮ 박용일 편저 ▮

연변인민출판사

중국조선족 전통문화, 풍속 이야기

박용일 편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럽복희

책임교정: 신분희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中国朝鲜族传统文化和风俗故事: 朝鲜文 / 朴勇一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7

ISBN 978-7-5449-0641-8

I. 中… II. 朴… III. 朝鲜族-民间故事-作品集-中国-
-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77.3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113889号

中国朝鲜族传统文化和风俗故事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吉市学苑印刷厂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9.25 字数: 19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41-8 (民文)

版次: 2009年7月第1版

2009年7月第1次印刷

印数: 1000册

定价: 3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머리말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가 발굴, 수집, 정리되어 편집, 출판에 교부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무척이나 흥분되었다.

2006년 8월 25일, 제1차 연변통소절을 마친 그날 저녁 자리를 함께 한 민간이야기 수집, 정리가인 박용일씨가 우리 민족의 통소유래에 대해 물으면서 “통소의 유래에 대해 발굴하고 이야기로 정리하고싶다”고 했다. 그때 나는 적극 찬성했다.

연변통소는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재로서 2008년 제2차 국가급무형문화재 목록에 등록되었다. 2005년 3월 31일, 국무원에서는 “우리 나라 무형문화재 보호사업에 관한 의견”정신을 반포하였다. 뒤이어 무형문화재 신청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무형문화재가 내포한 민간이야기를 위주로 발굴하고 수집, 정리하여 출판한다는것은 무형문화재 보호와 흥



보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박용일씨는 통소로부터 시작하여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위주로 발굴, 수집, 정리하기 시작하였고 발굴, 수집, 정리된 이야기를 연변텔레비죤방송신문에 연속 발표하였는데 반향이 좋았다. 부지런하고 끈질긴 그는 어느새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50여편이나 발굴, 수집, 정리하였다.

중국조선족은 어렵고 힘든 역사과정에서도 뿌리 깊은 찬란한 문화를 전승, 발전시켜왔다. 한 민족에게 있어서 무형문화재는 생존의 뿌리이고 또한 생활 그 자체로서 곧 생명문화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후세에 물려준것은 그들이 피눈물로 개척한 이 땅과 민족정신의 숨결인 진귀한 문화유산이다.

중국조선족 무형문화재에 대한 발굴, 수집, 정리 사업은 주덕해동지의 지시에 따라 1950년대초부터 시작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금싸라크같이 귀중한 민간문학이 발굴, 수집, 정리 및 출판된것이 무려 150여권에 달한다. 이처럼 보귀한 문화유산이 이 세상에 남게 된데는 민간문학 발굴, 수집, 정리가들의 의무감과 사명감이 담긴 로고가 깃들어있다.

2005년부터 시작된 우리 주 무형문화재 발굴 및 신청 사업에서 33개 항목이 주급무형문화재 목록에 등록되었고 24개 항목이 성급에 등록되었으며 10개 항목이 국가급에 등록되었다. 진귀한 무형문화재가 생존, 발전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민간이야기가 발굴, 수집, 정리되어 출판되는것은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조선족의 생활세태와 풍속, 역사유적유물, 전형적인 옛 부락 등 방면에서 전설, 유래, 역사이야기 같은 많은것들이 완미하지 못하기에 깊이 발굴하고 연구할 과제가 남아있다. 례하면 통소, 장구, 상모(象毛)춤, 복식(服飾),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그리고 김치, 랭면, 환갑, 전통혼례 등은 그에 관한 전설이거나 유래 그리고 어원 같은것들이 제대로 정리된것이 없을뿐만아니라 그런 업종에 종사하는 전문인원들도 잘 모르고있는 형편이다.

“우리 민족의 무형문화재를 위주로 그에 따른 유래, 역사이야기, 전설, 이야기어원을 발굴, 정리하여 후대들에게 알리고 세상에 전하는것이 소원”이라는 박용일씨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바이다.

길림성민간문예가협회 부주석,
연변민간문예가협회 상무부주석 리성비
2009년 2월 22일

차 례

머리말	1
조선민족문자의 유래	1
아리랑(我離郎)전설	7
통소의 유래	14
가야금에 깃든 이야기	22
상모춤의 유래	27
그네뛰기의 유래	33
널뛰기의 유래	39
물둥이와 빨래방치	44
씨름의 유래	49
줄당기기의 유래	54
색동저고리에 깃든 이야기	61
새집들이 풍속	67





중국조선족 전통문화, 풍속 이야기



조선민족의 혼인풍속	70
신랑의 한복	77
행주치마	84
전통혼례에서의 기러기	86
환갑의 유래	93
조선민족의 상례풍속	102
조선민족의 제례풍속	106
지신제의 유래	110
어곡전전설	112
찰떡이야기	120
랭면의 유래	126
설날의 유래와 풍속	133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을 먹는 유래 ...	136
단오명절의 유래	142
추석의 유래	145
화투 48장의 뜻과 유래	148
웃놀이의 유래	152
장기의 유래	157
소에 대한 이야기	164
토장(土醬)이야기	168
토장기념나무에 깃든 이야기	176
동지날 팔죽을 먹는 유래	182
배추김치의 유래	185
술의 유래	192



개고기를 먹는 유래	200
순대의 유래	202
담배에 깃든 이야기	205
진달래꽃에 깃든 이야기	212
민들레꽃에 깃든 이야기	219
백일홍에 깃든 이야기	225
봉선화에 깃든 이야기	231
박꽃에 깃든 이야기	245
사과배의 유래	252
열두가지 띠의 이야기	259



1) 쥐띠, 자(子)	259
2) 소띠, 축(丑)	261
3) 호랑이띠, 인(寅)	263
4) 토끼띠, 묘(卯)	264
5) 룡띠, 진(辰)	266
6) 뱀띠, 사(巳)	268
7) 말띠, 오(午)	272
8) 양띠, 미(未)	273
9) 원숭이띠, 신(申)	276
10) 닭띠, 유(酉)	277
11) 개띠, 술(戌)	279
12) 돼지띠, 해(亥)	281



조선민족문자의 유래

아름다운 조선민족의 문자는 1446년 음력 9월 백성을 가르치는 소리라는 뜻의 훈민정음으로 세상에 고고성을 울렸는데 조선의 제4대왕 세종이 창시자이다.

세종대왕은 과학문화발전과 외래침략자들의 침입을 막는 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여 역사에 길이 전해오는 인물이다.

세종대왕의 본명은 리도(1397년—1450년)로서 태종의 셋째왕자였다. 세종대왕은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좋아했다. 깊은 밤에 궁궐안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방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세종대왕이 거처하는 방이었다. 세종대왕은 역사, 법률, 천문, 음악, 의학에 관한 책을 골고루 다 읽었는데 한 시라도 책이 손에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곤 했다.

이렇게 지식을 중히 여기는 세종대왕은 밥을 먹을 때에도 항상 책을 펴놓고있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당당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자를 갖게 되기까지에는 세종대왕에 관한 이런 한토막의 이야기가 깃들어있다...

어느날 세종대왕은 집현전(集賢殿)으로 나왔다. 1420년에 설치된 이 집현전은 당시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육성하는 동시에 왕과 세자에 대한 학문적인 자문, 교육과 각종 학술연구, 서적편찬을 담당하는 전문 기구였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것은 당시 집현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학문연구와 각종 편찬사업을 비롯하여 음악, 미술 등 예술활동이 활발했다는 점이다. 특히 훈민정음의 완성과 반포는 이 시기 문화유산의 마멸할수 없는 결정이라 할만하다.

1428년 이후 세종대왕에 의하여 집현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간행사업은 《고려사》, 《고려사절요》, 《자치통감훈의》 등의 역사서; 《사서언해》, 《대학연의언해》, 《효행록》, 《삼강행실도》, 《오례의주》 등 유교경전과 유교륜리에 관한 서적; 《명황계감(明皇誠鑑)》, 《치평요람(治平要覽)》 등의 중국정치서; 《운회언역》, 《룡비어천가》, 《동국정운》 등 훈민정음이나 음운, 언해에 관계되는 서적; 《팔도지리지》, 《조선전도》, 《세종실록》, 《지리지》 등의 지리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등의 의서; 《농사직설》 등의 농서를 비롯하여 중국법률, 중국문학, 천문, 병서 등 다양한 범위에서 행해졌다

그날도 집현전의 학자들은 여느날과 같이 세종대왕이



학문을 론하러 나온줄로 알고 자리를 정돈하며 책들을 펼쳐들었다.

그런데 세종대왕은 그 누구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를 내놓는것이였다.

“과인이 오늘 이곳으로 일부러 나온것은 한가지 큰일을 의논하고싶어서이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우리 나라의 자체 문자를 만들수 없겠는가 하는것이다.”

“.....”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은 처음 듣는 소리라 모두 의아해하며 서로 바라볼뿐 입을 열지 못했다.

“이것은 과인이 오래전부터 궁리해오던 문제인데 아무래도 우리에게도 우리들의 자체 문자가 있어야 한다고본다.”

“.....”

“세상의 많은 나라들 거의다가 자기 나라의 말과 문자를 가지고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이 있어도 문자가 없어 남의 문자를 가져다 쓰고있으니 이것은 심히 몇몇치 못한 일이 아니냐.”

“.....”

“우선 한문(漢文)을 놓고 말할 때 우리들의 말을 기록하기에 불편한것이 많고 또한 배우기가 어려워 온 나라의 백성들이 문자를 몰라 눈을 뜨고도 장님이 되여있는것이 다.”

“.....”



“그러니 우리의 말을 바로 적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장
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배우기 쉬운
우리의 자체 문자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옵니다.”

언감생심 누구의 말이라고 거절할가! 묵묵히 앉아서 듣
고만 있던 집현전의 대부분의 학자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그런데 이처럼 필요한 우리 민족의 문자를 어디 가서
가져오거나 또 어느 누가 우리에게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
니 오직 여기 앉은 그대들의 손에 의하여 나와야 할것이
아니냐.”

“.....”

“그러므로 과인은 우리의 말소리에 맞는 문자를 그대
들이 만들어보기를 부탁하는바이다.”

“예, 전하의 기대에 보답하겠습니다.”

“과인이 그대들을 불러 집현전을 세웠으니 집현전을
세운 뜻이 헛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명심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이날부터 집현전의 학자들은 우리 조선민족
자체의 문자를 만들기 위한 탐구에 달라붙었다.

새로 만들어야 할 우리 민족의 문자에 대한 모색은 마
치도 야삼경 깊은 밤 캄캄한 수림속에서 길을 찾는것과 같
이 막연한데다가 우리 민족의 문자를 만드는 그 자체를 반
대하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은 집현전 학자들중에도 있었는데 당시 집



현전의 부학제였던 최만리가 그 대표자였다.

최만리는 오래동안 쓰던 한문(漢文)을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 쓰려는것은 예로부터 선조들이 이룩하여온 문화를 허물어버리고 나라의 문화발전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것이니 장님이 된 백성들을 깨우치려다가 도리어 온 나라 군신(君臣)들까지 장님이 되게 하는것이라는 리유로 반대해나섰다...

그 바람에 집현전 학자들속에서는 새 문자를 만들어내는 탐구길에서 먼저 새 문자를 만들어내야 하는가 만들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논쟁으로 법석 끓었다.

며칠이 지난 얼마뒤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직접 다시 집현전으로 나와서 문자를 만들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모임을 가졌다.

세종대왕은 먼저 집현전의 모든 학자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다 털어놓으라고 하였다.

집현전 학자들의 서로 같지 않은 의견을 다 듣고난 세종대왕은 한참 침묵을 지키다가 엄하게 입을 열었다.

“나라의 문화와 장님이 되여 사는 백성들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들자고 하는것은 과인의 의도이고 뜻이다. 그러할진대 예로부터 임금의 뜻을 어기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역신이라 하였으니 오늘 새 문자를 만드는 뜻을 받들지 않는 신하는 과인이 역신으로 처단할것인바 그리 알고있어라.”

세종대왕의 노기찬 말에 집현전의 학자들은 모두 목을 움츠렸다.



이런 모임이 있는 뒤에도 최만리가 그냥 자기의 주견대로 새 문자를 만드는 일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뒤말을 내뱉었다는것을 알게 된 세종대왕은 그를 강원도 감사로 내려보내고말았다.

그후부터 집현전의 학자들은 정력을 몰부으면서 오직 우리 민족의 자체 문자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탐구의 나날을 보냈다...

세종대왕의 로심초사와 집현전 학자들의 노력과 연구로 드디어 얼마후에 자음 17자와 모음 11자 도합 28자의 문자가 만들어져 우리 민족도 당당하게 자기의 문자를 갖게 되었다.

세종대왕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문자를 “훈민정음”이라고 하고 사람마다 널리 배우도록 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후 이처럼 업적이 높은 세종대왕은 소갈증이란 병으로 앓다가 1450년 54세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당시 세종대왕에 의하여 만들어진 글을 우리 민족은 오늘까지 쓰고있다.



아리랑(我離郎)전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멀고먼 옛날, 어느 한 지역에 김씨라는 사람이 살고있었다.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고 벼슬욕이 가득한 김씨는 요행 판서라는 벼슬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판서로 되는 날부터 부근의 농토를 널리 장악하고 농군들에게서 가렴잡세를 가혹하게 받아내는 바람에 농군들은 끼니를 잇기 힘들 정도로 살아가기 바빴다.

거기에 또 설상가상으로 그해따라 극심한 흉년이 들어 사람들이 거의 굶어죽을 형편으로 되었지만 김판서는 가혹한 수탈을 멈추지 않았다. 그 바람에 농군들의 생각은 극으



로 치달아 김판서를 없애버릴 모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김판서네 집에는 성부라고 부르는 암전한 노비와 리랑이라고 부르는 억대우같은 노복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끔찍하게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그들의 사랑이 한창 무르익어갈 때 리랑도 이번 농군들의 모의에 깊이 가담하고있었다.

물론 성부는 사랑하는 리랑의 일을 반대할리가 없었다. 며칠동안의 노력으로 농군들의 모사계획은 빈틈없이 무르익어갔다. 마침내 거사일로 작성한 시월 그믐날이 닥쳤다. 달도 없는 캄캄한 어둠을 틈타 리랑을 비롯한 농군들은 김판서집으로 들이닥쳐 한창 농군들이 피땀으로 벌어들인 은량을 세고있는 김판서를 처단하고 대부분의 아전들을 죽여버렸다.

그런데 종이로 불을 썰수 없듯이 이 사실이 즉시로 조정에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급히 많은 관군들을 풀어 농군들의 반란을 진압했다. 관군들의 칼앞에서 농군들은 이겨낼 힘과 방법이 없었기때문에 무리죽음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리랑은 성부의 도움으로 김판서네 고간의 쌀뿔주속에 숨었기에 목숨을 구할수 있었는데 관군들이 돌아간 다음 인적이 드문 수락산속으로 숨어들었다. 물론 성부와 백년해로 언약을 맺고 함께 피한것이다. 비록 관군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관군들에게 잡히면 극형을 당할 상황이였지만 깊이 숨었기에 성부와 리랑은 부부로 결합되어 그런대로 행복한 나날을 보낼수 있었다.